

고환이 꼬이는 병, '정계염전'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 게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자던 고3 수험생 K 군은 한밤중에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 왔다. 진찰 결과 좌측 음낭 부위가 탄탄하게 뭉쳐 있었으며, 위로 치켜 올려보니 더 큰 통증을 호소했다.

성 경험이 없는 순수한 학생이므로 고환이 꼬이는 병인 '정계염전'이란 병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었다. 이 병은 고환을 매달고 있는 정계가 새끼줄 꼬이듯이 꼬이면서 점차 고환에 가는 혈액 순환이 차단되는 것으로, 심한 통증과 함께 고환이 점차 질식해 가는 아주 초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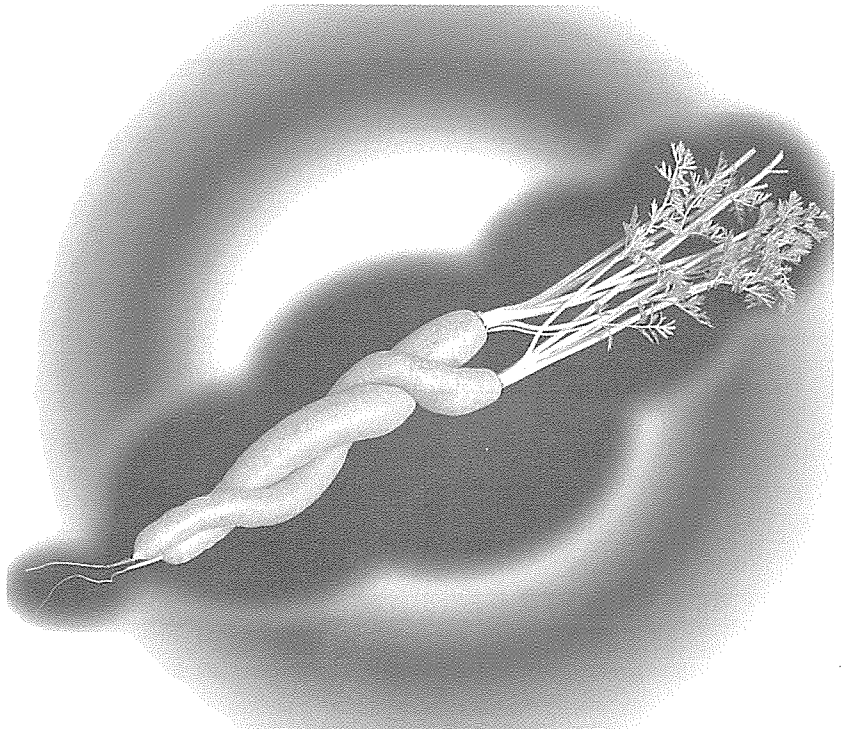
곧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해 보니 왼쪽 고환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꼬여 있어 새끼맷게 죽어가고 있었다. 꼬인 것을 풀어서 고정해 주니 혈액 순환이 회복되고 점점 제 색깔로 돌아 왔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빨리 처리되어 만족할 만한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초기에 정확한 진

단과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다.

L군도 비슷한 증세로 내원하였다. 응급수술을 권유했으나, 갑작스런 수술 권유에 당황했고 입시를 앞두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과 혹시 오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보았다.

그곳에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이므로 음낭에 부종이 생기고 뭉쳐 있어, 부고환 염증에 의한 것인지 꼬인 것인지의 감별이 쉽지 않았다.



감별 진단을 하느라고 초음파 검사를 하며 지내다 보니 이미 24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지났기 때문에 고환이 새까맣게 죽어서 떼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한 순간의 무지와 판단 착오로 애꿎은 고환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러한 병은, ① 고환이 밑으로 잘 내려오지 못한 경우나, ② 선천적으로 고환을 싸는 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 고환을 끌어 올리는 근육에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나면 꼬이게 되는 것이다.

사춘기 자녀들에서 잠을 자다가 잘 나타나는 이 병은 8시간 내에 빨리 처리하면 완전히 회복되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엔 회복이 어렵다.

모든 수술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나, 본 예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신속한 판단과 전문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처럼 불행하게도 고환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인공고환을 삽입시켜 줌으로써 그 모양을 갖출 수 있어 정신적 콤플렉스를 예방할 수 있다.

고환 통증 외에 '고환 멍장'이라는 것도 있다. 고환에 붙어 있는 필알만한 조직이 꼬일 때도 심한 통증과 함께 음낭이 붓는 현상을 일으킨다. 이 증세 역시 초기 진단이 늦어져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끈다든가 진단을 잘못하여 부고환염 등으로 오진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중의 하나이다. **72**

음주와 건강

건강한 음주를 위하여①

1. 누구와 함께 마시자

따 흘러 일한 후의 맥주 한잔이나, 조용한 음악을 즐기면서, 또는 사색을 하기 위해 드는 칵테일 한잔이라면 혼자 마셔도 멋이요 맛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마시는 술은 위험하다. 한국 사람이 술을 많이 자주 마시면서도 알콜중독이 적은 이유는 무리를 지어 마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과음한다 싶으면 말릴 사람이 있고 아주 취하면 업어서라도 집에 안전하게 모셔간다.

그뿐 아니라, 찬방에 군분을 지퍼주고 이튿날 따끈한 해장국까지 먹여 직장에 데려간다. 근무가 시원찮아도 적당히 상사 눈에 안 띄게 잘 카버해 주니까 술로 인해 큰 사고를 치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위험이 적다.

화난다고 혼자 술마시는 사람이 가끔 큰 사고를 치는 것도 혼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여자들이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술이 드디어 습관성이 되어 정신과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혼자이기 때문이다. 술은 여럿이 어울려 담소하며 즐겁게 마시는걸 원칙으

로 해야 한다.

혼자서라도 마셔야겠다는 사람이라면 중독증 제 1단계에 들어선 걸 의미한다.

2. 천천히 마시자

우리가 하는 일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술 마시는 것도 대단히 급하다. 칵테일 한잔으로 대략 한 시간에 걸쳐 마시는 서구인과는 아주 판판이다. 우리는 칵테일 파티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여러잔을 서로 권하고 마신다. 칵테일 파티는 원래 권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잔으로 끝내는게 예의다.

생화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간에서 술을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시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술 끈들이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그 양이 아주 인색할 정도로 적다. 맥주 한잔, 소주 두잔, 정종 중잔으로 한잔이 고작이다. 그것도 한시간에 걸쳐 마셔야 한다. 이 정도라야 간에 부담이 없다. 최근 국제 비교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치가 다른 민족에 비해 체질적으로 아주 적다는 것이다. 천천히 마셔야 한다. 분위기를 즐기면서 도란 도란 담소하면서 천천히 마시자. **72**